

광고자율심의위원장에 듣는다



김태호 광고자율심의위원장, 삼성 전무

Q 방송광고사전심의가 위원으로 결정됐다. 광고자율심의위원장으로 감회가 특별하실 것 같다. 이번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위원 판결은 우리 광고계의 일대 사건이다. 이번 판결로 광고의 창의성 발휘 기호가 확대되어 광고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가 광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Q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한국광고주협회의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와 관련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는 비단 방송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등 태매체의 광고심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 광고심의와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광고심의의 주체인 광고주들의 역할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심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필요성에서였다.
작년 2월 한국광고주협회 이사회에서 자율심의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Q 그동안 방송광고사전심의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 왔나.
2007년 5월에 있었던 첫번째 회의에서 우선 방송광고사전심의의 개선을 일차적 과제로 선언하고, 광고자율심의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준비작업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우선 국내 방송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법석 세명대 교수와 문철수 한신대 교수를 초청,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의 현황 및 폐해, 사전검열로 인한 위헌성, 해외자율심의제도와의 규정 등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해 국내 방송광고심의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무엇보다 방송광고사전심의 문제점을 이 슈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광고주들의 피해사례 수집과 사전검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기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건의하였다.

Q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위원 결정이 나고 광고자율규제체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며 광고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이미 지난 해에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위원판결에 대비하여 광고주 스스로 자율심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이번 위원판결을 맞아 업종별 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조직,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시스템과 심의규정 모두 진일보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사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수립되었지만 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 많은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자율규제시스템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광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야 할 것이다.

Q 광고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의식도 커질 것이 예상되는데 광고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광고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번 판결문의 요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광고도 이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여겨야 자리 잡았다. 그동안 인식의 장벽으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늘어진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광고주 스스로 보다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자율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내부 윤리강령을 통해 광고주 스스로 광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광고주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광고주가 앞장 서서 엄법적인 광고집행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광고의 자율관리 노력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 지난 6월 30일 광고자율심의위원회 회의에 주재하고 있는 김태호 위원장(우)과 초청연사로 자리를 함께한 서법석 세명대 교수(좌)

지난 6월 30일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위원 결정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자율규제 하에서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였다.<편집자 주>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위원 결정’에 따른 결의문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광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환영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질 높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기업인들은 광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보다 무겁고 엄숙한 책임감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 1. 우리 광고주들은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관리 노력을 통해 합법적이고 품위 있고 진실하고 유익한 광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 우리 광고주들은 허위, 비방,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과당 경쟁을 자제하여 광고가 선의의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1. 우리 광고주들은 방송사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광고자율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아가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1일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일동